

Raonatti 10th Timor-Leste

11월 보고서



Raonatti 10th Timor-Leste

목차

11월 달력

비자트립

아띠클라세

-미술

-과학

-노래&게임

-한국어

중간평가

축구경기

이 달의 문화생활



Raonatti 10th Timor-Leste

일 Nov	월	화	수	목	금 1 비	토 2 자
3 트	4 립	5 아띠 클라세 시작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중	26 간	27 평	28 가	29	30

Raonatti 10th Timor-Leste

비자트립

11월 1일부터 11월 4일 까지 비자트립이 '급'결정 되었다. 당황스러운 일정 변경이었지만 발리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팀원들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질 수 있었다.

좋은 여행이었지만 4박5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볼 것이 많아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사진을 함께 많이 찍지 못해서 아쉬웠다.

Raonatti 10th Timor-Leste

비자트립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미술)

미술수업에서는 그림 그리기와 종이 접기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가장 흥미 있어하는 수업이다. 미술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수업이 어렵다. 아이들이 그림에 자신이 없어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따라서 그리려는 경향이 크다. 물감 등 다른 것을 이용한 수업을 하고 싶지만 스케치북과 색종이, 크레파스 등 물질적인 부분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미술)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미술)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과학)

과학수업은 티모르 학교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지 교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수업이다.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 원리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현지 언어인 떼뚨어로 원리를 설명하는데 단어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술수업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서 어린 아이들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수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 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과학)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과학)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노래&게임)

노래수업은 티모르에 동요가 없어 한국 동요를 떼똌어로 번역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 수업이다. 아띠들이 가르친 '코끼리 아저씨'는 센터아이들의 유행가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한다.

게임수업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 노는 시간이다. 한국의 게임과 티모르의 게임을 함께 하며 서로의 문화를 즐겁게 배우고 있다.

게임수업은 아이들과 함께 센터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나서 시작한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티모르의 아이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쓰레기 줍기를 게임수업 전에 하고 있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노래&게임)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노래&게임)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한국어)

한국어 수업은 청년부와 아동부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접해온 친구들로 학습에 대한 열의와 흥미가 높았으나,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는 드물었다.

이에 한국어 수업은 한글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 간단한 회화를 통해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동티모르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자 했다.

현재 청년들은 영어 표기를 보지 않고도 한글을 읽을 수 있어서, 한글로 된 모든 글을 읽을 수 있다. 반면 아동부의 한국어 수업은 취학 전 아동들이 많아 한글을 익히는 것에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인원도 변동이 많아 수업 진행이 힘들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아띠클라세 (한국어)



Raonatti 10th Timor-Leste

중간평가

11월 25일부터 28일 까지 여수YMCA의 김일주 간사님이 오셔서 아띠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에서 현지 간사님들과 한국 간사님들이 함께 아띠들의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하였다. 좋은 피드백도 있었지만 '언어가 부족하여 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언어를 익혔으면 좋겠다'와 같은 아띠들이 반성할 만한 피드백들도 있었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중간평가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고민을 한 결과, 아띠들이 아띠클라세에 너무 치중하여 처음에 가졌던 '같이 놀자'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온 것이 아니라 자원활동을 온 것이라는 처음의 생각을 되새기면서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 아띠클라세가 세 번의 기수를 맞으면서 정착이 되었으나, 새 기수들이 올 때마다 새로운 활동이 아닌 이전에 했던 활동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활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활동보고서를 잘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해야겠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중간평가

아띠들을 국내에서 훈련시켜주셨던 여수YMCA의 김일주 간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들떠있었다. 평가기간 이어서 긴장도 되었지만, 오랜만에 간사님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 맥주도 한 잔 하며 그 동안 못 나누었던 대화도 나누고 티모르의 대표적 관광지인 '크리스토 레이'도 방문하였다. 특히 간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팀원들에게 개인 편지를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짧은 중간평가 일정이 아쉬울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

Raonatti 10th Timor-Leste

중간평가



Raonatti 10th Timor-Leste

중간평가



Raonatti 10th Timor-Leste

축구대회

동티모르YMCA의 축구팀이 티모르 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참여하였다. 다른 축구팀들은 성인들로 구성된 팀들이었지만 티모르Y의 축구팀은 청소년 팀이 참가하였다. 비록 이 대회에서 1승 3패라는 성적을 거두었지만, 성인 축구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였다.

아띠들도 경기마다 시원한 물과 아이스박스 등을 준비하여 청년들의 경기를 응원하였다. 아띠들이 경기에 응원을 할 때마다 청년들이 매우 기뻐하였고 이 전보다 더 친해졌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축구대회



Raonatti 10th Timor-Leste

축구대회



이 달의 문화생활

공산당선언 – Lino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은 공산주의를 공개선언하고 그의 원리를 설명한다. 단순히 좌빨들을 위한 공산당을 찬양하고 공산당을 전파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사회과학분야를 관통하여 유럽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자본가(부르주아), 노동자(프롤레타리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며, 세계가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현재와 닮은 부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이 달의 문화생활

“시골이 도시에 종속되도록 만든 것과 같이 미개국과 반미개국들이 문명국들에게, 농민의 나라가 부르주아의 나라에게, 동양이 서양에게 종속되도록 만들었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물질적 강대국들은 소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비문명'국가, 지역을 찾아 문명화 시키고 자신들의 물질을 전파한다. 전파된 물질들은 비문명 국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전통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기존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킨다. 물질적인 부분의 변화는 사람의 생각, 사회의 구조,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변화를 가져온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이 달의 문화생활

현재 우리가 있는 라온아띠 또한 '문명'국의 '비문명'국가에 대한 종속을 강요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그들로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배우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한다면, 한국과 아띠들이 있는 국가의 관계가 문명국-비문명국이 아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매워주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달에
만나요~